

3강. 히브리서 3장-4절13절, 우월하신 그리스도 III, 참된 안식

1-2장 요약: 더 좋은 메신저/사신은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세계를 창조 하셨다(히1:1-3).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이심으로 천사보다 우월하다. (히 1:4-14). 천사는 천상의 존재로서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신이었으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은 없었다. 그러나 아들로써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와 영원한 영광이 임하였으므로 그는 보다 좋은 사신이다(히2:5-18).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천사 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것은 완전한 인간 세계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었다. 복습: 자연계시-자연과학, 특별계시-예수 그리스도, 불법과 죄를 없이 하시는...

초점	우월하신 분		우월하신 제사장		우월하신 삶
구분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제사장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율법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믿음 생활에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본문	히 1-2장	히 3-4장	히 5-7장	히 8-10장	히 11-13장
주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므로...얻었나니...하자
	우월성 강조		참된 희생		완전한 충족
장소	흩어져 있는 유대성도에게				
시간	A.D 64-68년경				

제 3 장 , 예수는 모세/선지자 보다 뛰어나시다

1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2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3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4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했습니다. 6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써,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문제1)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 인지요? 누구에게 성실했나요? 모세와 그리스도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공통점은 ?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참고 시편95편)

7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9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사십 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10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 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11 내가 진노하

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2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13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4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5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16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17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18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19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문제2) 우리는 무엇으로 미혹을 받는 가요? (Hint: evil thought and doubt) 악한 마음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Hint: 10 "Then God got tired of them and said, 11 God became angry and told the people, ")

문제3) 안식과 구원을 누리는 방법을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3 You must encourage one another each day. And you must keep on while there is still a time that can be called "today." If you don't, then sin may fool some of you and make you stubborn.

제 4 장

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2 그들이나 우리나라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4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5 또 이 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6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7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9 그

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13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문제4) 참된 안식이란 무엇이며 지금도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소천하여 가야하는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인가요? '오늘'은 왜 중요한 날인가요?

(참고 3 Only people who have faith will enter the place of rest. It is just as the Scriptures say, "God became angry and told the people, " God said this, even though everything has been ready from the time of creation.)

문제5) 하나님의 기쁜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말씀에 깊은(기쁜?) 의미가 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해지던 순간이 있었나요? 왜 그랬을까요? (힌트: 믿음은 단순 belief 가 아니고 faith).

문제6) 히브리서 기자님은 왜 갑자기 12-13절을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기자가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본문관련하여 무엇일까요?

시편95편, 1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2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3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4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6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 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 보아라. 8 "므리바에서처럼, 맛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9 너희의 조상들은 그 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10 사십 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싫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11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